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만,
내가 경험한 양성평등은 아주 작은 일상속에서 시작되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선생님, 남자애가 인형 놀이를 해요.”, “여자애가 공구 놀이만 해요.”라는
이야기다.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선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선택이 때로는 어른들의 고정된 생각으로 인해
제한되기도 한다.

몇 해 전 자유놀이 시간이었다. 한 남자아이가 아기 인형을 품에 안고 분유를 먹이는 놀이를 하
고 있었다. 친구들은 “아빠도 아기를 돌볼 수 있어.”라며
역할을 나누었고, 다른 아이는 기저귀를 가져와 인형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아이가 “인형 놀이는 여자애들이 하는 거잖아.”라고 말했다.

잠시 아이들 곁에 앉아 물었다.

“아기를 돌보는 건 엄마만 하셔야 할까?”
아이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빠도 나랑 동생 목욕시켜 줘요.”
“우리 아빠는 밥도 하고 요리도 해 줘요.” “우리 아빠는 어린이집도 데려다줘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웃음이 났다. 아이들은 이미 집에서 경험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기준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반에서는 역할놀이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졌다.
남자아이가 아기 엄마가 되어도 되고, 여자아이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되어도 모두가 자연스럽
게 받아들였다. 블록 놀이에서는 여자아이들이 커다란 자동차와 공사장을 만들었고, 남자아이들은
주방 놀이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성별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선택했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했다.

어느 날은 바깥놀이를 마치고 무거운 물놀이 교구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아이가 “이건
남자들이 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여자아이 한 명이
“나도 할 수 있는데?”라며 함께 상자를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조금 무거워했지만 다른 친구가
자연스럽게 옆에서 함께 들어 주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힘든 일은 남자, 쉬운 일은 여자”
라는 구분보다 “힘들면 함께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후 우
리 반에서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성별이 아니라 “도와줄 친구?”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인 나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무심코 “남자답게 씩씩하네.”, “여자답게 예쁘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를 잘 도와줘서 멋졌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대단했어.”, “생각을 잘 표현했구나.”처럼 성별이 아닌 행동과 노력, 배려를 칭찬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작은 말의 변화가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일 느끼기 때문이다.

가정과의 연계도 중요했다. 부모 상담을 하며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이야기할 때도 “남자아이니까 이런 놀이를 시켜야 한다.”, “여자아이니까 얹전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아이의 흥미와 개성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드렸다. 다행히 많은 부모님들도 공감해 주셨고, “집에서도 아빠와 함께 요리를 하고, 엄마와 함께 공을 차며 노는 시간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작은 변화가 가정으로 연계되어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정책이나 특별한 교육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친구의 선택을 놀리지 않고 존중하는 것, 교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한마디를 돌아보는 것, 부모와 함께 아이의 가능성을 성별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 편견은 어른들이 만들어 주기도 하고, 존중 또한 어른들의 모습에서 배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아이들에게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너라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아이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란다.

교사인 나의 작은 실천이 언젠가 아이들의 당연한 가치관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